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주민 문화 향유

무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우리동네미술’ 작가팀 공모
내달 6일까지 37명 이상 구성
사업은 내년 2월 마무리

무주군이 지역 문화창달과 주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은 지역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 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 반영 등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 작품 조성 등 새로운 예술작업 시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하는 2020 공공 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은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다. 무주문화원은 4억원 규모로 내년 2월까지 최북미술관 1층 옛 생활사 전시관에 ‘무주’를 테마로 전시 공간을 조성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동네미술 작가팀’을 공모할 계획으로 참가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문화원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및 무주 문화원(☎063-324-1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우리 동네 미술을 추진할 프로젝트 참여 작가 팀을 모집하고 사업의 고삐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참여팀은 대

표자, 작가, 행정 지원인력을 포함해 3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역 미술인을 중심으로 하며, 미술관련 협·단체 회원에 가입한 예술인과 미술관련 학부 졸업생,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인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10월중 사업을 착수해 내년 2월 마무리되며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 작품을 조성하거나 주민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과 김장미 과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4년 연속 선정

동춘리 고분군 중심으로 지역
가야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 찾기’ 내년 전 국민 대상 진행



장수군이 문화재청 주관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은 생생문화재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수가야랑 놀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수군이 문화재청 주관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장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장수군은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 4년 연속 생생문화재 사업에 선정됐다. 내년 장수군 생생문화재사업은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에서 미래 찾기’라는 주제로 사회적 제552호 ‘장수 동춘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및 백두대간 속 청정자연경관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들을 계획했다. 장영수 군수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장수군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향유를 통해 1500

년 전 장수군에 자리한 가야문화를 비롯한 장수만의 역사문화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님의 자산은 안/전/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지급을
보장합니다.

정부보증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 법률 제4조

5천만원이 넘는 원금, 이자까지

우체국보험

당신을 믿어요!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연방 1억 원의 신화를 우리 우체국에서...!”

당신을 무체국 FC(보험설계사)로 모십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

남원우체국 063) 630-3131



커피와 인생 이야기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김용덕
테라로사 대표 이야기 손님 출연
가야금 연주자 이지혜도 무대 위에
공연은 30일 온라인으로 선보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실황 녹화 영상을 오는 30일 ‘국립민속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공연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다담 공연의 이야기 손님으로 김용덕 테라로사 대표가 출연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제2의 성공 인생을 걷게 해준 커피와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강릉을 명품 커피 도시로 만든 그의 성공 노하우와 삶의 철학을 들려준다. 우리음악 즐기기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재직 중인 가야금 연주자 이지혜가 출연해 아리랑을 펼치다, 바다를 꿈꾸는 해당화 등 자신이 직접 작곡한 창작음악을 통해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명품 연주를 선보인다. 왕기석 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문화예술시설이 모두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무료함과 피로함에 지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늘부터 무형문화재 기능인 22인 초대 전시회

기린미술관서 내달 17일까지 온라인 전시와 같은 기간 동안

전주 기린오피스텔 3층에 있는 기린미술관(관장 이형욱)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무형문화재연합회가 주관해 무형문화재 기능인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그러나 너무 짧은 오프라인 전시를 아쉬워하는 애호가들이 많아 온라인 전시와 같은 기간인 10월 17일까지 이를 연장 전시한다. 전라북도에는 각각 44명의 예능과 기능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다. 이번 기린미술관 전시에는 기능분야 무형문화재 22인이 심혈을 기울인 총 48점을 전시한다. 이 전시는 꺼지지 않는 장인의 혼을 살리고 천년 전통의 혼을 잇는 정신으로 출품된 작품들로 그 품격이 높아 전북의 예술혼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높은 것들이다. 이번엔 참여한 무형문화재는 고수환 약기장, 김종연 민속목조작장, 김한일 아장, 김혜미자색지장, 박강용 옷칠장, 박계호 선자장, 방화선 선자장, 변경환 배철장, 서인석 약기장, 신우순 단청장, 안곤 옷칠장, 안시성 부거리 용기장, 엄재수 선자장, 유배근 한지발장, 윤규상 지우산장, 이삼열 탕화장, 이신입 낙죽장, 임순옥

침선장, 장동국 분청사기장, 최대규 나전장, 최동식 약기장 및 최중순 대금약기장 등 총 22인으로 전통 문화의 집결체이다. 전북도 무형문화재연합회 왕기석 회장은 “무형문화재 기능인들의 작품을 한곳에 모아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연합회에서 10월 17일 까지 무형문화재연합회 홈페이지(www.jeonmyeong.com)에 비대면 전시회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전시상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시도 된 것이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비대면 전시는 전북 무형문화재가 온라인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전북만의 특색있는 문화 가치를 확산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정기공연, 유튜브 생중계로

다음주부터 ‘순창티브’로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회장 김봉호)가 주최하고 문화재청, 전북도, 순창군, 순창군의회 등이 후원한 제18회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 정기공연이 지난 19일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야외광장에 열렸다. 이날 공연은 금과들소리 전승·발전에 힘써온 이수자 운영백씨와 회원 50여명이 참여하여, 금과들소리 정기공연 최초로 무관중 공연으로 선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공연 당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공연에 앞서 황숙주 순창군수와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 금과들소리보존회 김봉호 회장

이 각각 ▲장수상 양병욱 ▲연기상 최애순 ▲근면상 박길심 등 총 3명의 회원에게 상패와 상장을 시상하여 기운을 북돋았다. 이번 공연은 매년 6월에 개최되던 공연이 코로나19로 9월로 연기되면서 단일 금과들소리보존회 공연으로만 진행됐다. 공연은 물론이고 모찌는 소리, 모심기, 김매기 소리, 장원질 소리 순으로 진행되어 힘든 농사일을 품앗이를 통해 극복하면서 흥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엿들 수 있었다. 이날 공연을 보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다음 주부터 순창군 공식 유튜브인 ‘순창티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금과들소리는 현재 60여명의 보존회원들과 운영백, 김희정 이수자가 노력과 열정으로 전승, 발전해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